

광주 일자리 '꽁꽁' 얼었다...실업률 3.8% 9년만에 최대치

호남통계청 '2018년 연간 광주·전남 고용동향'

1년 전보다 0.9% 경중...실업자 3만명 전년비 34.7% 급증
주력 산업 불황·자영업자 급감... 전남은 공공일자리 증가

일자리가 꽁꽁 얼어붙었던 한해였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건 게 무색할 정도로 지난해 광주는 '최악' 수준의 일자리 지표를 드러냈다. 전남도 공공 일자리 증가분을 빼면 일자리 상황은 좋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악의 실업률, 무색한 일자리 창출= 호남지방통계청이 9일 내놓은 '2018년 연간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실업률은 3.8%로, 지난 2009년(3.8%) 이후 9년 만에 최대치였다. 1년 전보다 0.9%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울산(1.1%포인트) 다음으로 증가폭이 컸다. 월별로도 '역대 최악'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지난해 3월 광주 실업률은 5.0%. 지난 2009년 3월(5.0%)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 2005년 이후 광주 실업률이 5.0%를 넘어섰을 때는 ▲2005년 2월(5.0%) ▲3월(5.5%) ▲4월(5.0%) ▲2006년 2월(5.1%) ▲2009년 3월(5.0%) 등 5차례에 불과했다.

4%대 실업률도 2월(4.5%), 4월(4.6%), 5월(4.0%), 8월(4.2%) 등 네 차례에 달했다. 광주 실업률이 4.0%를 넘어섰을 때는 올해를 빼면 지난 2016년 2월(4.0%) 이후 한 차례도 없었다. 실업자도 급증했다. 지난해 광주 실업자는 3만명으로 전년(2만2000명)보다

34.7%(8000명)나 늘었다.

광주 실업자가 3만명을 넘어설 때는 지난 2001년(3만1000명) 이후 17년 만이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해 실업자는 107만3000명으로, 2000년 이후로는 가장 많았다. 실업률도 3.8%로 2001년(4.0%)를 기록한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취업자 증가 폭도 지난해 9만7000명에 그쳐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다만, 전남의 실업률은 2.8%로 전년(3.2%)보다 낮아졌지만 정부와 자치단체의 공공형 일자리 증가가 반영된 만큼 일자리 현장 분위기는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계 상황 내몰린 서민들= 지난해 '서민경제의 침범'이라는 자영업자가 급감했다는 점도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광주지역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14만 9000명으로 1년 전(15만5000명)보다 4.2% 감소했고 도소매·음식 숙박업 종사

자도 1년 전에 비해 1만5000명이 줄어 15만5000명에 불과했다.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들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3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전남도 지난해 자영업자가 28만 5000명으로 전년도보다 4.0%(1만2000명)나 줄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취업자 수가 줄어든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7만2000명)이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들도 타격을 입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398만 7000명으로 8만7000명이 줄었다.

지역민들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광주지역 비경제 활동 인구가 1년 전(49만 4000명)보다 1만2000명 감소한 점도 지난해 암울한 지역 경제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표다.

◇주력 산업 침체도 영향=주력산업 침체도 지표에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분야 광주지역 취업자는 지난해 11만1000명으로 전년도(11만6000명)에

비해 3.8% 줄었고 광공업 취업자도 11만 2000명으로 4.1%(5000명)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타이어, 가전·반도체 등의 수출 부진 등이 협력업체 등 관련 산업 종사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파악한 지난해 3분기까지 광주지역 자동차 수출액은 12억1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무려 21.1%나 줄었고 관련 업종인 타이어 수출액도 1억2100만달러에 머물며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1.6%나 감소했다. 지난 3분기까지 광주지역 반도체 수출액도 11억7900만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12억4800만달러)에 견줘 5.5% 감소했고 냉방도 등 백색 가전 수출액도 3분기까지 2억2500만달러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 23.2%나 쪼그라들었다.

◇올해는 나아질까= 지난해 '고용 쇼크'가 올해도 이어질 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정책적 노력으로 올해 고용 지표

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내외 악재가 산재한 탓에 잦은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는 15만명이다. 지난해 실적 9만7000명보다는 5만여명 많지만 2017년 취업자 증가 폭(31만6000명)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올해 민간투자와 서비스업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사업 등 정책 노력도 병행해 일자리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 반도체 수출 둔화 가능성 등으로 정부 목표를 하회하는 고용 전망을 내놓고 있다.

광주도 '광주형 일자리'가 성사되지 못한 상황인데다, 주력 산업도 불투명한 대외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경기 활성화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505보안부대 옛 터 광주 시민 품으로

시, 원형 보존 체험 공간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지휘부로 사용됐던 광주시 서구 화정동 505보안부대(기무부대) 옛터가 광주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광주시는 9일 "5·18사적지 제26호인 505보안부대 옛터를 원형 보존하고, 역사 체험을 통한 미래세대 교육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505보안부대를 국방부로부터 양여받기 위해 2007년 6월 5·18사적지(제26호)로 지정된 후 이듬해 3월 5·18역사공원으로 지정했다. 이어 2014년 10월 국방부와 무상양여 및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505보안부대 부지가 광주시 소유로 전환되자 시는 역사체험을 통한 교육공간 활용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5·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5·18 역사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또 5·18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듣고 공원녹지과 등 관련 부서와 업무 협업을 통해 지난해 국비 19억원을 확보했으며, 올해도 건물 안전진단과 공원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사업비 31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108억원을 투입해 ▲5·18 민주화운동이 미래 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세대 간 통합을

지향하는 역사 체험·교육 및 청소년 창의 공간 조성 ▲상상력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설치물을 자유롭게 탐험하고 체험하는 어린이의 공원 조성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한편, 505보안부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학생운동 지도부와 시민군 등을 붙잡아 고문 수사를 자행했다. 이곳은 항쟁진압 작전의 실질적인 지휘본부이기도 했다. 또, 505보안부대를 중심으로 5·18 초기 시위대 강경 진압과 정보조작 등이 이뤄졌고, 동구 금남로에 분실을 두고 신군부 핵심 세력이었다던 보안사령부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광목 기자 kroh@kwangju.co.kr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촉구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축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통일부에 방북신청서 전달에 앞서 방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 친환경 녹색축산 확대에 2천억 투입

전남도는 축사시설 현대화와 친환경 스마트 축산 시설 확충 등을 위해 올해 국비 463억원 등 2168억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전남 축산업 발전 목표를 '환경 친화형 녹색 축산 실천·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정하고 가축 사육환경 개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 축산 ICT 융복합 등 43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역점사업으로 한우 송아지 브랜드 5천 마리를 선발하고 사육 시군을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한다.

친환경축산물 인증 2000호, 동물 복지형 녹색 축산 농장 350호, 깨끗한 축산 농장 500호를 육성하고 조사료 생산 4만 9000ha 조성과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등도 추진한다.

환경 친화형 녹색 축산기반 확충을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913억원을, 축사 시설 현대화에 425억원을, 축산 ICT 융복합 60억원을 투자한다. 올해 신규 지원사업은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및 시설·장비 지원 34억원 등 7개 사업 89억원 규모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또 가축분뇨처리 지원 124억원, 축산 약취 저감제 공급 48억원, 축산 농장 약취 저감시설 지원 15억원,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 89억원 등 5개 사업에 215억원을 지원한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10개 사업에 125억원을 지원한다. 가축유통시설 현대화(17억원),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15억원),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15억원), 한우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10억원), 축산물 가공·유통 시설 설치 지원(9억원) 등이다.

올해 신규 지원사업은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및 시설·장비 지원 34억원 등 7개 사업 89억원 규모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서남권 섬·해양 관광 중심지로 육성

도, 목포·신안·무안과 관광협업체 구성

전남도는 목포·신안·무안군과 관광협업체를 구성해 서남권 공동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마케팅도 함께 펼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3월 신안 천사대교·4월 목포 해상케이블카 개통 등 섬·해양관광 인프라가 확충되고, 무안공항 국제 정기노선도 증가하면서 전남 서남권 관광 여건이 크게 개선될 데 따른 것이다.

서남권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는 신안 천사대교·목포 해상케이블카·자은도 해

양복합시설인 신안 아일랜드·안좌도 테마공원·1004타워·칠산대교(무안 해제·영랑) 건립 공사 등이 추진되고 있다.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신

안 팔금·암태 선착장에 푸드트럭 특화 거리 조성, 신안 중부권 임시버스 환승장 설치, 암태 오도 폐항을 활용한 경관 카페 설치 사업도 하고 있다.

관광협업체는 갯벌·해수욕장·해양레저 등 서남권 특화 관광자원과 고유 문화 자원을 조사하고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에 나선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단독섬
바로잡니다. 010-6834-7400
전남, 북지역/지분환영

★투자자 모집★
· 1억원 이상
· 특수물건만 취급
· 소유권/근저당으로 보장
(주)오천경매.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전망 좋은 오피스텔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73평, 사무실 전용, 코너
■ 20층중 20층, 하천방향, 전체 울수리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5대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
■ 매매 - 4억(일시불 조정가)
■ 임대보장
문의. 010-6834-74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화순군 동면 서성리 656㎡ 경관 아주좋은 1억1880만원
· 별장 나주시 다시면 대지 450㎡ 시설·환경 좋은 2층 97㎡ 3억
· 화순읍 이십곡리 대지 860㎡ 광주에서 10분거리 2억6천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1728㎡ 전원주택·주말농장 적합 1억7천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투자·매도·교환
· 서구 쌍촌동 운전자수지 부근 2층 주택 땅 105㎡ 새주택 118㎡ 2억6천
· 별장형주택 남평읍 수원리 대지 403㎡ 주택 143㎡ 2억6천
· 장성 남면 덕성리 주거지 588㎡ 광주인근 교통좋은 1억8500
· 강진군 드림팜평관농원 땅 10194㎡ 시설완비 6억5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4861㎡ 창고·가든·매장 등 복합 6억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대지 641㎡ 사찰·빌라·다세대 적합 1억5백
· 무안 해제면 소재지 상업지 1036㎡ 은행 2억4천 매도 1억 조정가능
· 장성 삼계면 주산리 상업지 432㎡ 장기투자에 적합 5200만원
· 무안 청계 목포대학부근 주거지 땅 4413㎡ 은행 2억4천 매도 7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7억5천
상가건물
· 용평동 고시텔 대지 357㎡ 건평 830㎡ 은행5억 매도 8억5천 조정가능
· 목포 옥암동 여관 대지 439㎡ 건평 989㎡ 객실 27 은행 4억 매도 6천만원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점 토지 155㎡ 건물 4층 263㎡ 4억천
· 동구 서석동 대지 404㎡ 5층건물 919㎡ 9천에 월300수익 10억2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점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특급물건
· 정읍시 신태인읍 1213㎡ 김정 6억4천 대세대 적합 은행 4억3천에 매도함
· 제주시 애월읍 땅 10023㎡ 공사중단건물 신막 51억 유자권 30억·81억
· 팬션 순천만 대대동 땅 332㎡ 룸 8개와 관리실 은행 3억 영업질질 3억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부동산 매매
● 남악 신도시 ●
지 번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308번지
면 적 12,510.5㎡ (3,785평)
매 매 가 230억원
용 도 일반상업지역, 대로변점 사거리코너
권 장 업 종 예식장, 관광호텔, 아울렛, 오피스텔, 창고형 마트 등
전남도청 앞 남악신도시의 최고 핵심상권!!
※본물건은 전속중개물건임
(주) 조은날부동산
☎ 010-3111-5087